## 마쓰다이라고 원지

마쓰다이라고 원지는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에서 고게쓰인 절로 가는 마쓰다이라고의 중심도로변에 있는 약 2 헥타르의 녹지 지역입니다. 이 공원은 마쓰다이라 가문이 이곳을 통치했던 14~15 세기 당시의 풍경을 표현해 만든 곳입니다.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꽃들이 피어납니다. 3~4 월에는 벚꽃, 초여름에는 꽃창포와 수국, 가을에는 싸리꽃이 피고, 붉고 노란 단풍이 색을 더해줍니다.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원내를 흘러가는 개울은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6 월 저녁에는 개울 주변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으며, 연못에는 꼬마잠자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.

공원 서쪽 입구에서 이어지는 길은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(1394 년 사망 추정)의 동상으로 안내해 줍니다. 이 동상을 향해 길 양쪽에 늘어서 있는 7 쌍의 돌기둥은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 이전의 마쓰다이라 가문 8 세대를 상징합니다. 마쓰다이라 가문의 9 대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가문을 일으켰고, 1603 년부터 1867 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를 개설했습니다.

공원 동쪽 입구 부근에는 우동과 메밀국수 등 간단한 식사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'덴카자야'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. 이곳에서 판매하는 '덴카모치'는 꼬치에 경단 3 개를 꽂아 일본의 '천하를 얻은 3 인'인 오다 노부나가(1534~1582),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,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에야스의 떡에만 팥앙금이 올려져 있는데, 이는 세 사람 중 유일하게 영속적인 정권을 수립했음을 나타냅니다.